

## 코로나19 극복 온정의 손길

## 하나금융투자 등 4社 대구·경북에 5억 기부

중구청·동산의료원 등에 전달



하나금융투자는 하나자산신탁, 현대건설, 도원개발과 함께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5억원을 공동으로 기부했다고 11일 밝혔다.

기부금은 총 5억원으로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 중구청에 각 2억원, 동산

의료원에 1억원이 전달된다. 현지 사정으로 인해 기부금은 대구에 위치한 도원개발이 대표로 전달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

## 에이스침대, 전국 대리점 임대료 등 11억 지원

240여곳 점주들과 상생 나서  
직원 인건비 지원책 마련도

코로나19로 영업 피해가 큰 대구·경북지역 대리점 34곳을 포함해 전국 240개 매장에 임대료는 물론 각 점주가 급해야 할 매장직원 월급 일부를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대리점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본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이달에 1차로 지원할 액수는 11억원에 달한다. /김승호 기자 bada@

에이스침대(대표이사 안성호·사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리점주들과 상생에 나섰다.

에이스침대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대구·경북 지역의 대리점을 포함해 전국 대리점 경영주들이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임대료 및 인건비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낙원약기상가,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낙원약기상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고 11일 밝혔다. 낙원약기상가는 상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상가 임대 매장을 대상으로 3월부터 상반기 중 약 4억 여 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낙원약기상가

## 네파, 대구 의료진에 1억 상당 의류 전해

기능성 라운드 티셔츠 6500장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대구 의료진에 약 1억 원 상당의 의류를 기부한다고 11일 밝혔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 공차코리아, 전국 매장에 물품 무상전달

손소독제·위생장갑 등 지원



공차코리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점주들을 위해 전국 매장에 물품 무상지원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본사 측은 직원과 고객의 안전을 위해 전 매장을 대상으로 손소독제, 일회용 위생장갑, 마스크를 무상 지원한다.

공차코리아는 현재 손 소독제와 일회용 위생장갑을 모든 매장에 전달했

다. 마스크는 대구, 경북 지역에 우선 공급 후 빠른 시일 내 타 지역까지 전달을 마칠 예정이다.

매장 방역도 철저하게 시행한다. 방역 금액은 본사가 전액 지원한다.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 55개 매장에는 1톤 상당의 태피오카 펄을 지원한다.

/김민지 기자



## 윤위종의 잠시쉼표

위기가 닥치면 언제나 그럴듯이 가장 악한 고리부터 끊어진다.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시작된 경제위기가 가장 악한 고리부터 흔들고 있다.

우리의 악한 고리는 주위를 둘러보면 쉽게 볼 수 있다. 서로 사는 곳은 달라도 분위기는 비슷할 것이다. 점심·저녁에 사람들로 넘쳐나던 식당가와 동네 가게들은 한산하다 못해 빠져나온 스냅다. 자영업자들이 사회적 고리에서 끊어지는 것이다. 각급 학교의 개학이 연기돼 급식을 비롯한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생계도 막막해졌다. 뒤이어 중소기업들이 줄도산의 위기에 처했다.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들도 예외가 아니다. 동방항공에선 신입 계약직 사원들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 항공사에 입사해 꿈에 부풀어 2년간 근무했던 직장에서 졸지에 쫓겨난 것이다. 이처럼 지금 사회 곳곳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곳이 우리의 악한 고리다.

코로나19로 빈부 격차도 확연히 드러났다. 가뜩이나 생계가 어려운 자영업자, 중소기업 종사자, 하청업체, 사회

## 순망치한

적 악자 등등을 더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이들은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과 달리 원격근무, 재택근무도 쉽지 않다. 심지어 마스크 지금에서조차 '격차'를 느끼게 한다. 현대자동차에서는 '원정업체가 하청업체에 물품을 지급하면 안 된다'는 규정 때문에 본사 직원들에게만 마스크를 지급했다고 한다.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는데 원정 직원들은 보건용 마스크를 쓰고 하청 직원들은 면 마스크를 쓰는 서글픈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정부가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서민들은 아직까지 체감하기 힘들다. 정부가 지난달 1조4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긴급 편성했지만 자영업자들에게 지원된 자금은 9일 현재 1360억원 가량에 불과하다. 소상공인 100명 가운데 4명만대출을 받았을 뿐이다. 기업들도 여러 방식으로 협력사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

지금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정부 지원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 경제예산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규모로는 지금의 경기침체를 살리기 쉽지 않

다. 이런 이유로 2차 추경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쉽게 결정할 수 없다. 지금 코로나19에 유가폭락까지 겹친 상황을 감안하면 설불리 결정한 이후의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쩌면 경제 위기는 이제 시작이다. 지금 대규모 추경을 또 추가하면 향후 발생할 상황에 대처할 여력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선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재난기본 소득'을 지급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다. 지역 상권을 살리고 시민들을 돋고 싶겠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돈을 무한정 써어낼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국민에게 헛된 희망만 줄 뿐이다.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 민주주의를 도입한 북유럽 국가들에는 가능하지만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아직 무리다. 과세제도가 투명하지 않고, 사회안전망이 그들보다 탄탄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정부가 자금집행을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의 디테일'을 살리는 수밖에 없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법이다. 서민경제가 무너지면 결국 대한민국의 뿌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산업부장 yhj@metroseoul.co.kr

## 이베이코리아, 대구·경북 소아암 환자에 마스크

소방관 등에 위생용품 1억 지원 이어  
임직원 봉사동아리 임팩트메이커즈  
백혈병소아암협회 통해 2000장 전달

이커머스를 통해 따뜻한 나눔의 마음이 모이고 있다.

대한민국 온라인 유통기업 1위 이베이코리아에서는 G마켓 소방관 지원 프로모션에 무려 15만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한편, 회사 차원에서 1억원을 대구경북지역에 지원한 데 이어 회사 임직원들도 모금을 통해 대구경북지역 소아암 환자들에게 마스크를 기부했다. 한편 G마켓, 옥션 상품 페이지에는 위생용품이 부족한 지역이나 계층을 위한 회원들의 자발적인 물품 기부 후기가 올라오고 있다.

우선 G마켓이 소방공무원의 심리케어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 중인 기부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터치'



이베이코리아 임직원들이 대구경북지역에 전달할 위생용품을 포장하고 있다.

/이베이코리아

캠페인에는 3월 10일 기준 약 15만명이 참여, 1500만원에 달하는 기금이 모인 상태다. 이번 캠페인은 3월 29일까지 G마켓 회원이 참여하기만 하면 G마켓이 전액 기부한다.

지난 4일 이베이코리아 임직원들은 사내 봉사동아리 임팩트메이커즈를 중심으로 440여만원을 모아 대구경북지역

역 소아암 환아들을 위해 한국백혈병 소아암협회를 통해 마스크 2000장을 전달했다. 이베이코리아는 지난달 27일 대구·경북지역 소방관들과 자가격리장애인 가구, 지역 활동가들에게 총 1억원 규모의 위생용품을 긴급 지원한 데 이어 직원 모금도 진행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인사

- ◆ 통일부 ◇과장급 전보 △정세분석국 경제사회분석과장 송지영
- ◆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감사담당관 이병건 △심판총괄담당관 안병훈 △협력심판담당관 황윤환 △정보화담당관 박정웅 △기업결합과장 이승규 △경제분석과장 황태호 △카르텔총괄과장 유흥욱 △입찰담합조사과장 박기홍 △지주회사과장 이승규 △가맹거래조사팀장 이희재
-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신규보임 △정책

## 기획실장 홍성진

- ◆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무처장 김영기 △비서팀장 전준호
- ◆ KBS △제작1본부 시사교양2국 CP 서용하
- ◆ 경향신문 △편집국장 안호기 △후마니타스연구소장 겸 논설위원 최병준

## 부음

- ▲ 이계필씨 별세, 동현수(주)두산 대표이사 부회장씨 장인상, 이용범(MA건축사무소)씨 부친상 = 11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

## 배포도우미 모집

강남, 서초지역 근무  
010-5241-6694